

## ■ 2025년도 다원예술 창작주체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다원예술 창작주체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2024년 12월 9일(월) 15:00~17:00 / 아르코미술관 위원회의실

- (2차) 2024년 12월 16일(월) 15:00~18:00 / 오라카이 대학로 호텔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영환, 김준희, 김진희, 배남우, 배은주

<2025년 다원예술 창작주체> 사업은 실험적인 창작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는 다원 분야 예술가에게 3년간의 중장기적인 활동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다원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심의는 접수된 총 65건에서 행정 결격 7건을 제외한 58건에 대해 심의위원 각자가 17일간 전수검토를 진행하였으며, 1차 서류 심의 회의를 거쳐 인터뷰 대상 6건을 선별하였습니다. 이후 2차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사업은 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0대 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원 해주신 모든 예술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심의는 사전에 공지된 바와 같이 사업수행 역량(40%), 사업 목표 및 계획의 충실성(30%), 기대효과(30%)를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며 1, 2차 모두 심도 깊은 논의와 다면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접수된 58건을 지역적으로 분류해보면 서울 및 수도권이 42건(약 72.4%), 그 외의 지역이 16건(약 27.6%)으로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창작과 실험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기술실험 19건, 장르 융복합형 28건, 장르실험형이 7건인데 반해 비평/평론이 2건, 기타가 2건으로 다원 예술분야에서 비평/평론 영역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현상이 반영된 것 같아 아쉬움도 있습니다.

심을 진행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심의 기준에 더하여 제시한 사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고 특히, 지원한 사업이 오늘날 예술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시대적인 담론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토의하였습니다.

다원예술 창작주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억 원으로 수월성이 돋보이는 사업 모두를 선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원금액을 상당 부분 삭감해서라도 더 많은 단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3개년'의 중장기프로젝트가 올곧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3개 사업만을 선정하게 되어, 심의위원 모두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선정된 3개 사업은 공통적으로, 예상되는 최종 결과물의 우수성은 물론이고 다년간 수행할만한 사업이라는 점이 반영되었으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행할 계획이 상대적으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종합해볼 때 매년 발견되는 현상이 올해에도 다수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작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사용의 적정성이나 실행가능성 부분에서 다소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도 있었으며, 다원예술 분야보다는 개별 장르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 사업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지원 신청서에서 사업이 갖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혜 대상에 대한 고민과 이를 반영한 홍보, 확산 계획이 상대적으로 치밀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선정된 예술가분들께서는 사업 수행에 있어 더욱 많은 고민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반영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선정된 모든 분에게 축하를 전하며 처음 지원신청서를 작성할 때 갖고 계셨던 사업 완성에 대한 바람과 초심의 진정성이 사업을 마칠 때까지 잘 유지되어 다원예술 영역의 외연이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다원예술 창작주체 심의위원회 일동